

한일농민문학론의 비교연구*

趙 鎭 基**

< 차례 >

I. 서 론

II. 일본 농민문학론의 성격과 전개

1.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성격
2. 농민파와 나프파의 논쟁과 이론 정립
 - 1) 농민파와 나프파의 논쟁의 양상
 - 2) 나프 농민문학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III. 한국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전개

1.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성격
2. 카프 내부의 논쟁과 농민문학론
 - 1) 대중화의 방안과 농민문학론의 제창
 - 2) 농민문학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IV 결 론

I. 서 론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한국소설을 논의하는 경우 농민문학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소설계에 농민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대 비평계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론과 작품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어느 만큼 문학적 성과를 획득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농민문학을 비롯한 농민문학론은 프로문단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으로 프로문학의 연구는 이를 외면하고는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미 신경향파소설이라 일컬어지는 작품에서도 농민의 가난한 삶이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문학을 대표한다는 작품 또한 농민소설이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로문학계는 작품보다 언제나 이론이 앞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농민소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농민소설보다 이론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 이 글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경남대학교 교수

과연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민소설을 연구하는 경우 작품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농민문학과론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프로문학론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는 반대로 농민문학론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김윤식의 지적처럼 실천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문학론 자체만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문학사에서 논의해 볼 수 있으며, 근대문학 사상사 및 비평사에서 그 나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민문학론의 성립을 고려할 때 그것은 프로문학론의 발전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문학론의 한 범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민문학 및 농민문학론에 대한 연구를 일별해 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농민문학(론)을 민족문학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60년대에서 80년대초까지, 소위 1930년대 브나로드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진 작품군을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작품만이 대상이 되었을 뿐 농민문학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작품과 함께 농민문학론을 대상으로 한 오양호의 「농민소설론」²⁾에서도 농민문학론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도 그것을 프로문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농민소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논의의 중심을 작품에 둠으로써 농민소설론의 성립과 성격에 대한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³⁾

다음으로는 프로문학론의 하나로 인식하고 농민문학론을 연구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김윤식, 권영민, 임진영, 류양선, 김영민의 논고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고는 기존의 견해를 벗어나 농민문학론을 프로문학론의 하나로 인식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높

1) 김윤식, 「농민문학론」,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1, P. 180

2) 오양호,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3) 김 준, 「농민소설연구」, 태학사, 1992

김영건, 「카프계 농민소설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6.

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고가 갖고 있는 한계는 지나치게 안함광과 백철의 논쟁에 치우쳐 양자의 시비를 가리는데 집중되어 있거나⁴⁾, 아니면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전개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지워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⁵⁾는 것은 농민문학론의 성격을 단순화하는 경향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농민문학론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파악한 하세가와 테츠오(芹川哲世)의 논고⁶⁾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농민파와 나프파의 농민문학론과 우리의 농민문학론을 비교하고 구체적으로 작품까지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괄목할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측 논의는 특정한 논문⁷⁾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단순화되고, 우리의 농민문학론에 대한 견해도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농민문학론도 일본의 농민문학론의 영향에 의하여 성립되고 전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의 농민문학론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농민문학론과 비교 검토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일 프로계 농민소설론을 비교연구하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프로문학계에서 농민문학을 중시하게 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농민문학은 어떠한 계급적 기초 위에 서 있는가 하는 농민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해명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문학과 농민문학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은 류양선도 지적하고 있는 것⁸⁾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 논쟁의 핵심이 이 문제로 수렴되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먼저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성격을 살펴

4) 김윤식, 「한국문예비평사연구」, 한울문고, 1973

———,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1.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김영민, 「한국비평논쟁사」, 한길사, 1993

5) 임진영,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0

류양선, 「한국농민문학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4.

6) 芹川哲世, 「1920-1930년대 한일 농민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김윤식의 앞의 논문들도 비교문학적 태도를 어느만큼 견지하고 있다.

7) 高橋春雄, 「農民文學論史ノート」 「フロレタリア文學」, 有精堂, 1971.

8) 류양선, 앞의 책, P.45

보고, 농민문학론을 둘러싼 논쟁과 그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일본 농민문학론의 성격과 전개

1.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성격

일본의 근대문학사에서 농민문학이란 의미 내용을 확립시킨 것은 것이 문학운동의 형식을 취한 1923-4년경부터이지만, 농민문학이라고 하는 일분아가 문단의 중심적인 문제로 논의된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23-4년 이후 저널리즘에서 빈번히 취급되었지만 그것도 실은 농민문학운동의 추진자가 편집부에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던 「早稲田文學」이나 「文章俱樂部」, 「新潮」 등 특수한 방향을 갖고 있던 지방을 중심으로 한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 오늘날 우리가 농민문학이라 부르는 용어는 1906-7년경부터 '향토예술'(Heimat-Kunst, Heimkehrer Literatur, Heimat Dichtung, Volkskunst)과 같은 문학용어가 수입되어 근대문학에서 쓰여지기 시작했다⁹⁾. 이것이 1923-4년경부터 '농민문학'이라는 용어로 변하여 여러가지 뉘앙스를 포함하면서 근대문학사에서 의미와 내용을 확립하여 문학운동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농민문학은 초기에는 그 명칭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초기 일본 농민문학론을 대표하는 이누타(犬田卯)는 근대 농민소설의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土」의 작가 나가츠카 타카시(長塚節)와 동향인으로 그의 작품에 감화를 받아 '土의 예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한편, '대지주의', '향토예술', '전원문학', '농촌문학', '농민문학'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¹⁰⁾.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에 농민문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농민문학운동이 발흥하기 이전 농민문학의 밑바닥에는 공통적으로 '도시편중의 문예'에 대한 반성이나, 혹은 전통주의나 지방주의와 같이 분명 반근대주의적 문명비판에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물론 농민문학을 특징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소재적 차원이거나, 아니면 농민계몽

9) 芹川哲世, 앞의 논문, PP.13-4

10) 高橋春雄, 「初期の農民文學論とその性格について」, 「國文學研究」, 早稲田大學, 1954. PP.133-4 참조

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리얼리즘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1923년 「早稻田文學」 시평 「농민소설의 문제」에서 혼마 히사오(本間久雄)는 농민소설을 ‘농민을 제재로 하여 자연주의적으로 취급한 소설’ 혹은 ‘농민의 제생활을 문제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농민의 향상, 해방, 각성등을 자각하게 하는 소설’ 또는 ‘농민 자신이 농민의 각성과 행복을 위해 농민의 생활을 비평적으로 묘사한 소설’¹¹⁾이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일본에서는 이미 마르크스주의 문학이 어느만큼 자리잡고 있던 시절이었다¹²⁾. 그러나 농민문학은 본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문학과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성립과 함께 그들의 관심은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노동자 농민에게 주입할 것인가 하는 목적의식에서 농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던 것이다. 사실 아오노 수에키치(靑野秀吉)의 「목적의식론」(1926)이 발표되기에 앞서 1924년에 이미 이누타(犬田卯)를 중심으로 한 <농민문예연구회>(이후 농민문예회로 개칭됨)가 조직¹³⁾되어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926년 「목적의식론」이 발표되기 전후로 많은 잡지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었으며¹⁴⁾, 같은 해 이누타를 중심으로 한 농민문예연구회에서 농민문학의 이론서로 「農民文藝十六講」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 책은 집필자 모두가 많은 정열을 쏟은 흔적이 뚜렷하고 오늘에 와서 보아도 획기적

11) 高橋春雄, 앞의 논문, P.143 재인용.

12) 大正말기에서 昭和초기 일본문단에 대하여 平野謙은 ‘노동문학 이하의 유파와 신강각파 이하의 유파와 기성 리얼리즘문학의 「三派鼎立」이 시기’로 규정하고, 伊藤整은 ‘모더니즘문학과 마르크스주의문학과 사소설의 三角關係’의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13) 「농민파」의 강령은 ① 부르조아예술과의 투쟁, ② 마르크스주의 예술과의 투쟁, ③진투적 농민예술의 확립에 두고 있었다. 犬田卯, 「日本農民文學史」, 農山漁村文化協會, P.98

14) 中野重治의 目的意識論이 나오기 전후에 농민문학 논의는 매우 활발하여 15년 8월에 「早稻田文學」이 「土의 文學 특집」, 「文藝戰線」은 「노동문학 및 농민문학 연구호」, 9월에는 「太陽」이 「농촌불안호」, 10월에는 「解放」이 「농촌문제호」, 「地方」은 「농민생활연구호」, 소화2년 2월에는 「文藝」가 「농민문예 특집호」, 이어서 7월에 「文章俱樂部」에서는 「농민문학의 연구, 대중문학의 비판 특집호」를 각각 특집으로 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농민문학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南雲道雄, 「現代文學の低流」, オリジン出版センタ, PP.142-3 참조.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적 무통일'로 말미암아 프로파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농민문학의 전반적 문제와 함께 각국의 농민문학의 소개를 겸하고 있어 당시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27년에는 일본의 농민소설의 앤솔로지라 할 수 있는 「농민소설집」이 간행되면서 농민문학(소설)은 새로운 소설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집이 간행된 이유¹⁶⁾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농민들에게 목적의식을 주입시키는 프로문학으로서가 아니라 가난한 농민자녀를 위한 사회봉사적 성격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민에 대한 관심은 마침내 1927년 소위 농민파라 일컬어지는 농민문예회에서 이누타(犬田卯)를 중심으로 잡지 「농민」을 간행하면서 농민문학(론)은 문단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처럼 아오노(靑野季吉)의 「목적의식론」은 물론 프로문학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 농민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파의 농민문학운동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PF에서는 농민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농민파의 기관지였던 「농민」(제1차)은 1927년 10월에 창간되어 다음 해 6월 까지 전 9책이 간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犬田卯, 石川三四郎, 和田傳, 加藤武雄, 吉江喬松, 中村星湖, 黑島傳治 등이며, 기타 투고자를 합하면 180명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대동단결주의의 기치 아래 모인 것이었으나 反「文藝戰線」적 입장을 가진 사람의 조직체¹⁷⁾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 시기 농민문학론을 대표하는 것은 相田隆太郎의 「農民文學論」(1927. 10)과 「農民文學運動當面の 任務」(1928. 6.)라 할 수 있는데 그는 거기에서 농민문학과 농민문학운동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민문학운동은 농민계

15) 南雲道雄, 위의 책, P.143

16) 금년 봄 新潟市木崎村에서 있는 소작쟁의가 소작인 자체의 소학교 총퇴학의 결과를 초래해 일본농민조합 니이카타연합회의 간부들은 이를 기회로 무산농민학교의 건설을 기도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문학자에게 청해 왔다.--- 본서를 간행하여 그 인쇄의 전부를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인 무산농민학교의 건설자금으로 주려고 하는데 본서의 출판동기가 있는 것 -- . 高橋春雄, 앞의 논문, P.135재인용.

17) 芹川哲世, 앞의 논문, P.59참조.

급의 계급적 승리와 계급적 사명의 실현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그 의거하는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대중을 그 의거하는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민문학운동은 농민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대중을 농민계급적 의식으로 조직해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번째 임무는 농민문학운동의 각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¹⁸⁾

여기에서 ‘농민계급의 이데올로기’란 이후 농민파와 나프파 사이에 논쟁의 중심적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그리고 제2차 ‘농민’은 1928년 8월에 <농민자치회>에 의하여 창간되었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다음 해 4월에 전국농민예술연맹에 의하여 제3차 ‘농민’이 간행되어 1932년에 중단되었으나 잡지의 사상적 성격은 아나키즘적인 지방자치주의와 농민주의였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犬田卯, 加藤一夫, 遺田研一이었으며,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잡지의 특집으로 ‘프롤레타리아 비판호’(1929. 5), ‘부르조아예술 토벌호’(1929.7), ‘자기 청산호’(1929.8), ‘도시의 반역호’(1929.10)에 이어 ‘나프파 농민문학 박멸호’(1931.6)를 각각 특집으로 꾸며 1931년 후반에 이르러 양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처럼 농민파가 일찍부터 농민문학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나프측에서는 ‘목적의식론’이나 ‘예술대중화론’에서 ‘노동자 농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은 내걸었지만 구체적으로 농민문학에 대한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 하리코프(Kharkov)에서 열린 제2회 국제혁명작가동맹 회의에서 일반 결의 속에는 ‘농촌 프롤레타리아 및 근로농민의 혁명적 문학에 관한 결의’와 일본 소위원회의 제안인 ‘일본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대한 동지 마츠야마(松山は 勝本清一郎의 가명임=필자)의 보고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고 일본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에 관한 7개의 방향¹⁹⁾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민문학에 대한 결의는

18) 相田隆太郎, 「農民文學運動當面の任務」, 『農民』, 1928. 6. P.23

19) 1)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은 곧바로 국제적 조직에 가입해야 한다. 2) 노동통신운동이 일층 광범하게 확대되고 그 조직망 속에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기초를 세우고 뿌리를 내려 운동의 바탕을 강화하여야 한다. 4) 동맹 전체의 이론적 비평적 활동에 보다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농촌 공장에

다음과 같다.

국내에 거대한 농민층을 갖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는 농민문학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향을 심화하는 운동에 한층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내부에 농민문학연구회가 특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트의 체계모니 아래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위의 결의는 일본 프로문학에 있어서 농민 문제를 비롯한 농민문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1931년 3월 NAPF 속에 <농민문학연구회>가 결성되기에 이른다. 이후 나프진영에서도 농민문학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같은 해 11월에는 「농민의 旗」를 간행하는데 그 서문에서 농민문학연구회의 설립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농민문학연구회가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에 특설된 것은 지난 4월이였기 때문에 창립 이래 아직 6개월의 역사밖에 지니지 못했지만, 주로 농민문학의 기초적인 문제에 관한 토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 농민문학연구회가 설립된 근거는 두가지다. 하나는 작년 11월의 하리코프에서 열린 프롤레타리아 혁명작가 국제대회가 국내 인구의 4할 8분의 농민인 일본에 있어서는 특히 농민문학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향을 심화하기 위해서 농민문학연구회 특설의 급무를 결의한 것에 연유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10여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발전에서 무의식적으로 간파해 온 농민에 대한 영향을 보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이 강하게 작용한 것에 원인이 있다.²⁰⁾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에 있어서 나프파의 농민문학은

있어서 독서회 속에 완성한 비평적 활동을 발흥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동맹의 경험에 의하면 이 방법에 의해 농촌 공장 속에서 가장 우수한 이론가 비평가 다수를 생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운동의 전체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5)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있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방침과 함께 좌우 양익의 편향에 대한 2전선의 투쟁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6) 일본의 식민지 및 이민지(중국, 조선, 북미, 남미, 기타)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도 주의를 기울여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7)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문자의 동일, 지리적 근접 및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밀접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종래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또한 조직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におけるプロレタリア文學運動についての同志松山の報告に對する決議」, 「ナッフ」, 1931.2. PP.4-5

20) 南雲道雄, 앞의 책, P.149-150 재인용.

동은 내측으로부터 양성된 필연의 결과라기 보다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우연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²¹⁾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동맹 내에 농민문학연구회가 설치됨으로써 이누타(犬田卯)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농민예술연맹을 극도로 자극하게 되고, 또 일반 저널리즘이 ‘농민문학’을 크로즈 업하여 두 단체 사이에는 심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이 논쟁을 통하여 작가동맹(NAPF)의 농민문학론은 그 방향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농민파와 나프파의 논쟁과 이론 정립

1) 농민파와 나프파의 논쟁의 양상

농민파와 나프파의 논쟁은 물론 두 진영의 농민에 대한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대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문사의 지대한 관심으로 논쟁이 가열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일본) 좌익문단 일방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일본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에서는 오는 23일 築地小劇場에서 금년도 대회를 열어 1931년도에 있어서 나프계 작가의 지도이론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중략)-- 결정의안 중 최대의 문제는 하리코프대회의 결정에 의한 농민문학에의 약진적 투쟁의 결과 1931년도의 좌익문단에는 농민문학의 범람할 것이 예상되기에 이르렀다.²²⁾

나프는 지금 농민문학으로 문학운동의 방향을 여기에 두고 나아가려고 한다. 또 한편으로 잡지 「농민」은 나프의 농민문학운동에 대하여 박멸호를 발행하여 도전하고 있다. 지금 양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여기에 발표, 연구문제로 한다.²³⁾

이상과 같이 당시 저널리즘에서 이상하리만큼 농민문학에 관심을 보인 이유에 대하여 타카하시(高橋春雄)는 ①농민문학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작가동맹이 농민문학을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며, ②작가동맹 자체가 국제혁명작가동맹 제2회 대회(하리코프회의)의 일반 결의 및 일본 소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농민문학운동에 대한 관심, ③프롤레타

21) 高橋春雄, 「農民文學論史ノート」, 「プロレタリア文學」, 有精堂, 1971. P.182

22) 「東京朝日新聞」, 1931.4. 20.

23) 「讀賣新聞」, 1931.6. 1.

리아 문학 전반의 쇠퇴 가운데 농민문학운동이 전개된 점²⁴⁾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31년은 농민문학을 둘러싼 논쟁의 시기²⁵⁾라 할 수 있는데, 이 논쟁을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반기는 나프파의 일부가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를 논의한 시기이며 이에 대하여 농민파에서는 박멸호를 간행하여 비판을 가한 시기이고, 후반기는 나프파에서 농민파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면서 농민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따라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과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논쟁을 다루는 여기에서는 전반기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때 발표된 작가동맹측의 논문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다음과 같다.

- 1) 池田壽夫, 농민과 프롤레타리아문학, 「나프」, 1931. 2월
- 2) _____, 농민문학의 새로운 전향, 「나프」, 1931. 3월
- 3) 黒島傳治, 농민문학의 문제, 「東京朝日新聞」, 1931. 4월
- 4) 本庄陸男, 농민을 대상으로 한 2개의 작품, 「나프」, 1931. 5월
- 5) 小林多喜二, 문예시평, 「중앙공론」, 1931. 5월
- 6) 徳永 直, 농민문학에의 암시, 「讀賣新聞」, 1931. 5월
- 7) 黒島傳治, 농민문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讀賣新聞」, 1931. 6월

위의 글들은 하리코프회의 결의문 가운데 제3항(농민문학)의 해석 방법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한 초보적 단계의 농민문학론이기 때문에 농민파의 집중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농민파의 「농민문학 박멸호」에 발표된 논고는 다음과 같다.

24) 高橋春雄, 農民文學論史ノート 「プロレタリア文學」, 有精堂, 1971. P.182참조

25)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파와 「농민」파 사이에 전개된 1931년 후반에 걸친 논쟁은 이보다 앞서 「프롤레타리아문예 비판호」에서 가토(加藤一夫)가 「프롤레타리아문예에 있어서 문명의 문제」라는 글로 프롤레타리아문예에 대하여 도전을 하지만, 작가동맹측의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논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31년에 이르러서 「농민」파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작가동맹은 「농민」파에 대하여 논쟁을 전개한다.

茨木 隆(犬田卯), 何をか農民文學と言ふ?

松原一夫, ナップ派の文藝と我我

眞船晃一, 土の上に置かれた農民文學 - マルクス主義文學の排撃 -

寺神戸誠一, 「ナップ」農民文學論者に教ゆ -- 殊に小林多喜二, 黒島傳治,
池田壽夫の諸論を駁す --

물론 농민과의 농민문학론이 위에 열거한 것만은 아니지만 나프파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위의 논고들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논고를 중심으로 논쟁의 양상을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프파 작가 가운데 농민문학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은 다데노 노부유키(立野信之)의 「농민소설론」(1929)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이란 노동자 농민의 문학이라고 지적하고,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취재 범위로 노동자(공장)와 농민(농촌 혹은 지방)을 묘사한 것으로 나누고 특히 후자를 통상 ‘농민소설’, 혹은 더욱더 넓게 ‘농민문학’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농민소설에 대한 개념이나 성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농민문제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민해방은 ‘토지해방’에 의하여 해결된다. 농민은 오랜동안 토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중략)-- 농민에게 토지를 보증하는 것은 누구인가? 레닌은 말한다. ‘오직 프롤레타리아만이, 오직 프롤레타리아를 통일하는 바의 전위인 볼셰비키 당만이 xxxxx 빈농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를 모르면서 찾고 있는 농민에게 찾아주지 않으면 안되고,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²⁶⁾

이러한 주장에는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을 단순히 피지배계급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가 토지를 잃은 농민에게 토지를 찾아 줄 수 있다는 시혜자적 태도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부터는 일탈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1931년에 접어들면서 이케타 히사오(池田壽夫)는 「농민과 프롤

26) 立野信之, 「농민소설론」, 1929. 11. 조진기편역, 「일본프롤레타리아 문학론」, 태학사, P.479 (이하 별도의 출전을 밝히지 않은 일본자료는 이 책에서 인용한 것임)

레타리아문학』이란 글에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은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적 범주를 달리하며 농민과 프롤레타리아문학 양자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 양자의 차이를 체제와 표현의 문제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당시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을 작가별로 검토하고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1)지금 농민의 투쟁은 소작료 감면으로부터 빈농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투쟁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 우리 농민문학도 종래의 비극적 삽화적 경향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에 조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2)노동자와 빈농과의 정치적 결합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해게모니의 의의를 모든 작품의 구성구석까지 침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3)종래 동화시하여온 농업노동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빈농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4)불편적, 허무적, 목가적 경향의 극복과 농민의 대중동원, 지금의 농업공황, 실업 귀농자와 빈농과의 결합, 권력과의 직접적인 격돌, 일상적 조직투쟁 등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5)농민문학의 형식은 물론 농민의 심리, 감각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것은 현재 농민생활로부터 오는 음산, 음울, 지든한 것이 결코 아니라, 점차적으로 노동자적 형식에 계속 가까워 가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고 명쾌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6) 이들 모두를 종합하여 예술의 불세비키적 실천이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어 농민의 xx적 투쟁과의 생활적 터치를 풍부하게 넓혀나가지 않으면 안된다.²⁷⁾

위의 글은 문제의 제기에서 지직한 농민과 프롤레타리아문학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약점을 지니면서도 당시 발표된 농민문학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위의 (2)항은 같은 달 「나프」에 처음 발표된 하리코프희의 일본위원회 결의문, 이를테면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트의 해게모니 아래 두어야 한다.'는 부분을 미리 보고 의식적으로 그것에 이론적 해명을 가한 것²⁸⁾으로 생각한다. 이 점은 농민문학의 범주와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해명이 없으므로 해서 농민파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는 위 논문의 속편으로 「농민문학의 새로운 전향」을 발표하는데 그는 거

27) 池田壽夫, 「농민과 프롤레타리아문학」, PP.507-8

28) 高橋春雄, 「農民文學論史ノート」, P.186

기에서 농민문학은 프로레타리아문학 이외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농민문학의 존재 가치를, '광범한 계급투쟁의 도식을 정식화하는 가운데 도시노동자의 강고한 결함없는 농민의 승리도 해방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강화'²⁹⁾에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 농민소설의 대표작이라는 고바야시(小林多喜二)의 「不在地主」와 도쿠나가(徳永直)의 「輻重隊よ前へ!」를 분석하면서 노농계급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숙하다고 규정하고 새로운 전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먼저 기존의 농민문학에서는 농민으로서의 계급적 자각에 도달한 과정은 그려졌지만, 자본가 지주의 정치적 지배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전위로서 혁명적 활동'은 묘사되지 않고, 농촌세포의 활동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작 소작료의 경감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메달려 있었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전향은 무엇보다도 먼저 작가 자신의 관점을 정확히함과 '이데올로기적으로 xx(혁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민의 생활 가운데, 농민의 격화하는 투쟁의 현실 가운데서 뿌리를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하여 필요한 것은 농민문학의 새로운 전망이 문학상, 형식적으로 해결되고, xx적 슬로건이 삽입되지 않으면 안되고, 부단히 농민의 투쟁 속에서 치열하게 단련시킬 것³⁰⁾을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을 동일시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확립을 강조하여 '농민'과로부터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예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고바야시(小林多喜二)는 「문예시평」에서 '우리가 농민문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 농민을 취급한 작품이란 의미이고, 프롤레타리아문학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다만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를 취급한 작품에 대하여 편의상 농민문학이라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³¹⁾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농민문학의 성격과 범주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농민과 뿐만 아니라 나프파에서도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된다.

한편 구로시마 덴지(黒島傳治)는 「농민문학의 올바른 진전을 위하여」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농민파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으로 농민파가 주

29) 池田壽夫, 「農民文學の新しき轉向」, 「ナップ」, 1931. 3. P.52

30) 池田壽夫, 위의 글, P.58 참조.

31) 小林多喜二, 「文藝時評」, 「中央公論」, 1931. 5월.

장하는 ‘농민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농민이란 농업 노동자로부터 부농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농촌 인구를 하나로 묶어 농민 이데올로기라는 것으로 엮어 놓을만큼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³²⁾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농민과가 입버릇처럼 농촌은 도시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지주의 앞잡이이고, 동시에 부르조아의 앞잡이라고 규탄한다. 그는 소비에트연방에서 노동자와 빈농이 제휴하여 부농을 축출한 사실을 들어 노동자와 빈농의 제휴를 주장하면서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농민의 생활을 제재로 한 문학을 농민문학이라 부를 때,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나란히 대항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전(反戰), 반군국주의 문학을 반전문학이라 부른다. 그것과 같은 의미에서 농민을 제재로 한 문학을 농민문학이라 부른다. 이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문학 안에 하나의 분야로서 프롤레타리아문학에 포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³⁾

여기에서 그는 앞서 주장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농민문학을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동일한 범주에 넣음으로써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농민과의 주장은 근본을 모르고 지엽적인 문제를 붙잡고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농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빈농, 소중농, 지주 가운데 농촌 근로계급, 즉 빈농, 농업 프롤레타리아 가운데 뿌리를 두고 그들의 대중적 투쟁 속에 있는 농민 통신원의 운동과 결합하여 나아가는 것을 프로파 농민문학은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급격하게 혁명화하는 빈농의 성장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양하고 고난에 가득찬 빈농의 투쟁과 여러가지를 포함하는 농민의 생활을 현실에 맞추어 취급하고 표현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작품을 결론으로 점검할 때, 거기에 진정으로 농민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헤게모니의 바탕에 제휴하여 투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진리다.³⁴⁾

32) 黒島傳治, 「농민문학의 올바른 진전을 위하여」, P.510

33) 池田壽夫, 위의 글, P.511

이러한 주장은 농민문학을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동일시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농민의 소소유자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라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프과의 농민문학론이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를 동일한 범주로 설정하여 농민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주었으며 마침내 농민과는 「나프과 농민문학 박멸호」를 통하여 이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바라키(茨木隆, 犬田卯의 가명=필자)는 「무엇을 농민문학이라 하는가?」라는 글에서 그는 먼저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비약적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리코프회의의 결과라고 전제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농민문학에 대한 성격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먼저 고바야시(小林)의 논문, 「문예시평」에서 주장한 바 “우리가 농민문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 농민을 취급한 작품이란 의미로 프롤레타리아문학 이외의 무엇도 아니다. 오직 도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취급한 작품에 대하여 <편의상> 농민문학이라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편의상>이라는 어귀에 초점을 맞추면서 왜 <본질상>에서 논의하지 않는가 반문하고 참된 농민문학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농민문학은 속류 아나키즘과는 구별되는 ‘농민주의(농민자치주의)’에 입각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 아래 농민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은 전통적으로 부르조아에게 착취되고, 지배되었던 것처럼 형식상으로는 다를지라도 또다시 도시 프롤레타리아 내지는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는 인텔리직 지배층의 노예가 되고 피착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농민문학에는 영웅적 목적론에도 불구하고 농민이반의, 무획득의 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자신들의 농민문학은 무착취, 무지배의 사회에서 비로소 전인류의 공동생활이 실현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농민문학과 우리의 농민문학(자치주의 --속류 아나키즘이 아닌)에

34) 池田壽夫, 위의 글, P.513

35) 茨木 隆, 「何をか農民文學と言ふ?」, 「農民」, 1931.6. P.7참조.

입각한 농민문학과와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 즉 전자 -마르크스주의 농민문학-은 부르조아 사회에의 역행을 감행하는 사회운동에 참가하고, 후자 -농민자치주의에 입각한 농민문학-은 전인류의 공동사회운동에 협력한다.³⁶⁾

한편 그는 농민문학은 ‘농민 이데올로기’³⁷⁾에 입각하고 있는데 반하여 마르크스주의 농민문학에는 정략적이고, 편의상 재제를 농촌에서 구할 뿐 도시프롤레타리아문학의 변형이고 변태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이비 농민문학이 농촌에 들어오는 이상 단호하게 그것과 宣戰하고 배격하고 타도해야 할 것을 역설한다.

또 마츠하라(松原一夫)는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농민과 농민문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활태도, 사물을 보는 눈, 예술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지적하고³⁸⁾ 자신들의 생활태도는 자치적인 것으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착취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거부하는 자율적인 생활태도인데 반하여,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은 불세비키 독재에 헌신하는 악마주의적 태도라고 못박고 있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은 지배계급측에서 발생한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자치주의, 인간미, 군중의 힘, 대중의 예술은 민중이 지니고 있고, 또한 구하여 온 것³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물을 보는 눈이란 곧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들은 농민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사물을 본다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은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없이 농민은 해방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들의 공식인데 이것은 결코 농민의 이데올로기일 수 없으며, 자신들이 ‘농민의 해방은 농민의 힘’으로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농민 이데올로기라고 주

36) 茨木 隆, 앞의 논문, P.7

37) 이누타(犬田卯)는 「日本農民文學史」에서 농민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11개 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농민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필요품의 생산업태에 물질적 근거를 갖고, 협동상호부조의 조직화된 의식이며, 집단적 생활의 도덕적, 윤리적 통제원리, 즉 사회정의”라고 정의를 내리고 농민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자치의식으로 아나키즘 이데올로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犬田卯, 「日本農民文學史」, 農山漁村文化協會, P.136

38) 松原一夫, 「ナップ」派の文藝と我”, 「農民」, 1931.6. P.9

39) 松原一夫, 위의 논문, P.11

장한다. 이러한 마츠하라(松原)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소박한 감상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마후네(眞船晃一)는 「흙에 바탕한 농민문학」을 통하여, 다테노(立野信之)의 「농민소설론」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다테노(立野信之)가 ‘농민해방은 ‘토지xx’에 의해 해결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그는 ‘토지가 여하히 농민의 소유가 된다하여도 농민의 머리 위에 강권적인 지배자가 군림하고 있는 한 농민은 영구히 해방되지 않는다.’⁴⁰⁾고 전제하고, 농촌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도시는 존재할 수 없고, 도시와 농촌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시를 부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이 바다 건너 하리코프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약진적 투쟁을 하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농민문학이 일본의 농민생활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는 증거⁴¹⁾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농민문학은 도시집권적 마르크스주의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농민문학과 대립적인 것이며, 마르크스주의 농민문학이야말로 농민 기만의 문학이라는 것이다.

테라카미(寺神戸誠一)의 「나프과 농민문학론자에 가르침」은 이 글의 부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바야시(小林多喜二), 구로시마(黒島傳治), 이케타(池田壽夫)의 논문에 반박하는 글이다.

먼저 고바야시(小林多喜二)의 「문예시평」에서 ‘우리가 농민문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 농민을 취급한 작품이란 의미이고, 프롤레타리아문학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관점은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 관점일 뿐 농민 자신의 관점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농민문학은 농민을 主材로 한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고, 농민문학이란 태도 혹은 관점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농민문학은 도회, 공장, 광산, 해양과 같은 제재와 같이 그것이 올바른 사회적 관점--농민자치주의--에 서서 그려낼 때, 그것은 정당한 농민문학’⁴²⁾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케타(池田壽夫)의 글(나프 2-3월호)에 대해서는 ‘농민의 계급적 자각’을 강조하고 있음에 대하여 ‘계급

40) 眞船晃一, 「土の上に置かれた農民文學」, 「農民」, 1931.6. P.15

41) 眞船晃一, 위의 논문, P.17

42) 寺神戸誠一, 「ナッフ派農民文學論者に教ゆ!」, 「農民」, 1931. 6. P.19

적 자각이란 농민이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하에 예속될 때, 농민이 계급적 자각이라고 한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농민파의 비판은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의 관계에 대한 나프파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농민문학은 '농민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여 그들의 주장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민파의 발상 역시 주정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중농주의적 농민상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프파가 농민파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된 것은 하리코프회의 결의 이후 작가동맹은 <농민문학연구회>를 설치하면서 이누타(犬田卯)등의 농민문학운동을 연구하고, 평가할 여유가 없었다. 그것은 이누타(犬田卯)의 지적처럼 작가동맹의 농민문학이 '정책적, 정략적 문예'라는 측면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농민파의 그것은 미숙하였지만 '아래에서 위로'의 운동으로 차원이 서로 달라 이 양자의 농민문학 논쟁은 발전과 귀착점이 다른 것⁴³⁾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프파와 농민파의 전반기 논쟁은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시켜 주었다. 그것은 농민문학의 성격과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농민의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문제의 해명을 요구하게 되었다.

2) 나프 농민문학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1931년 6월 잡지 「농민」이 「나프파 농민문학박멸호」를 간행하여 나프파를 공격한 이후 나프파는 6월의 신문과 7월의 잡지를 통하여 일대 반격⁴⁴⁾을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농민파의 '농민 이데올로기'나 '농민자치주의'의 비과학

43) 南雲道雄, 앞의 책, P.167참조

44) 나프파의 반격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黒島傳治의 「농민문학의 올바른 전진을 위하여」(「讀賣新聞」, 6월 4-6일), 中野重治의 「농민문학의 문제」(「개조」 7월호), 宮本顯治의 「농민문학의 발전」(「東京日日新聞」, 6월 3일), 柴田和雄(藏原惟人)의 「농민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나프」 7월), 小林多喜二의 「계급으로서의 농민과 프롤레타리아트」(「帝國大學新聞」, 6월 8일), 壺井繁治의 「농민문학에의 새로운 관심」(「東京朝日新聞」, 7월 10-14일), 黒島傳治의 「농민문학의 발전」(「若草」, 7월)등이 그것이다.

성을 지적하여, 구라하라(藏原)는 ‘한낮의 꿈’으로, 나카노(中野重治)는 ‘그들의 주장은 무이론이고, 그들의 역할은 주로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있으며, 쓰보이(壺井) 역시 ‘농촌에 있어서 계급분화를 무시하고 머리 속에서 오직 농민 일반을 문제시하여 마침내 프롤레타리아트를 고립시키려는 부르조아지적 의도’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이들 논문들은 농민파의 공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자체내의 이론을 재점검하고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논쟁으로서 보다는 프로문학론으로서 농민문학론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나카노(中野重治)는 「농민문학의 문제」에서 농민파의 주장을 ‘도전’이라고 보고, 이 도전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민문학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이에 이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싸움으로서 농민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 정립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는 먼저 농민파에서 나프파 농민문학론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 서서 농민문학을 문제로 하고 있는 일파는 농민계층을 발판으로 하여 자신의 야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라거나 ‘도시와 농촌은 결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박하면서 나프파의 농민문학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농민 자치주의자와는 달리 우리는 농민문학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농민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농민문학의 발전을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만 일체의 것의 정확한 본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⁵⁾

여기에서 그는 농민을 단순화하여 하나의 계급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양한 계급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까지 나프 내의 농민문학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자신을 비롯하여 구로시마(黒島傳治)의 경우 철저히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양자 사이에는 ‘대립자가 아니라 가까운 혈족이며 그 사이에는 무수한 가교가 놓여 있는 것’⁴⁶⁾이라 하여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관계를 어느만큼 정확하게 이해하

45) 中野重治, 「농민문학의 문제」, 1931.7. P.540

46) 中野重治, 위의 글, P.541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민문학에서 대한 성격 규정이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구라하라(藏原惟人)였다. 그의 「농민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는 기존의 다양하게 논의되던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일본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글이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노동자와 농민의 밀접한 협력없이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권력 획득은 불가능한 것처럼, 문학운동에 있어서도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결합없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이론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혁명적 이론없이 혁명적 운동은 있을 수 없다.'는 레닌의 말을 인용하면서 '혁명적인 농민문학의 이론없이 혁명적 농민문학운동의 실천은 있을 수 없다.'⁴⁷⁾고 전제하고 기존의 농민문학론, 이를테면 다테노(立野), 구로시마(黒島傳治), 고바야시(小林), 이케타(池田)의 농민문학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들 이론은 약간의 결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초기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구라하라(藏原)에 의하여 지적된 초기 농민문학론자들이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을 거의 동일시함으로써 농민파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물론 농민파의 농민문학론은 지리멸렬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혁명적 농민문학이며 그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농민을 하나로 묶어서 농민일반으로 이해하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1925년-필자) 농민의 토지소유현황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당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150만, 1町 이하를 경작하는 농민이 383만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농업노동자임을 밝히고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농촌에 있어서 계급분화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은 '아사(餓死)할 것인가, 아니면 결정적 투쟁을 할 것인가!'⁴⁸⁾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소비에트에 있어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 노동자 농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제1차 경제계획의 성공으로 집단농장

47) 藏原惟人, 「농민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P.515

48) 藏原惟人, 위의 글, P.520

소프호스와 골호스라는 형태로 기계화 집단화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으로 농민파의 주장의 허구성과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농민의 이데올로기’란 빈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농 및 지주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그는 구로시마(黒島)의 주장이 정당했다고 규정하면서 구로시마의 주장에서 농민파가 주장하는 계급적 기초를 명확하게 폭로하지 못한 것이 허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농민」일파의 위험은 오히려 그들의 자작농, 특히 부농적 부분에 계급적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언제나 농민 전체의 이름으로 말하려는데 있으며, 특히 그들의 문학이론은 모든 부르조아 예술이론에 공통한 초계급적인 의장(儀裝)을 가지고 나타난다.’⁴⁹⁾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하는 ‘농민 이데올로기’란 부농적 농민을 그 중심계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농민문학은 ‘파시스트적 지배의 무기’가 되고 있는데 반하여, 나프파의 경우, 빈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과 프롤레타리아트와의 동맹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 아래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농민정부를 위해 투쟁함으로써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이 농민의 혁명적 욕구 위에 서서 농민문학을 제창⁵⁰⁾하는 것이라 했다. 그리하여 농민문학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 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가 어느만큼 선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라하라(蔵原)는 프로젝트에서 논의된 일련의 논문, 이를테면 고바야시(小林多喜二)의 ‘도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취급한 작품에 대하여 편의상 농민문학이라고 한다’는 주장이나, 구로시마(黒島傳治)의 ‘농민을 제재로 한 문학’이나 ‘프롤레타리아문학 내의 한 분야로서 포괄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프로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는 농민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소소유자적 성격 때문에 완전히 프롤레타리아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농민(빈농)의 투쟁은 토지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결정적인 투쟁에 있어서 동요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체계모니를 확보해야 할

49) 蔵原惟人, 위의 글, P.529

50) 蔵原惟人, 위의 글, P.531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농민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동맹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의 근거는 하리코프회의에서 ‘농민 문학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향을 심화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혁명적 소부르조아의 문학으로서 동반자문학을 갖고 있다. 이와같이 혁명적 빈농의 문학으로서 농민문학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동반자문학에 대하여 동맹자의 문학인 것이다. 우리의 농민문학은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⁵¹⁾

구라하라의 이러한 견해는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준 것으로 이후의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구라하라는 작가동맹 내부의 농민문학연구회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① 농민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 농민문학의 이론을 확립할 것, ② 농민작가 -농촌 통신원을 포함하여 - 창작활동을 지도할 것, ③ 농민작가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실행할 것⁵²⁾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라하라(藏原)의 주장은 농민문학의 성격을 둘러싼 농민파와 나프파 사이에 벌어진 오랜 논쟁은 물론 나프파 내의 이론적 혼란을 불식시켜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라하라(藏原)의 주장에 대하여 두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이론이 기계적으로 문학이론에 도입된 좋은 예의 하나⁵³⁾라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작품에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 사이에 명확한 한계를 긋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농민과 프롤레타리아와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에 의한 경제학적, 계급적 구별에서 설명하고 있어 농민 자신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다른 계급이고, 그들 독자의 문학적 표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일본 공산당의 전략이 ‘부르조아민주주의적 임무를 광범하게 포함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기 때문에 빈

51) 藏原惟人, 위의 글, P. 536

52) 藏原惟人, 위의 글, P.536

53) 池田壽夫, 「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の再認識」, 三一書房, P.168

농을 중요시하고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있어서 빈농의 역할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군이라고 하는 레닌의 이론을 그대로 빌려 동맹자의 문학으로서 혁명적 빈농의 문학을 농민문학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의 작품을 놓고 그것이 프롤레타리아문학인가 농민문학인가를 판별하는 것으로, 그것은 농민문학을 이론적으로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문학이 농민문학인가 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전자가 사회주의 건설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의 절멸에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토지의 획득을 직접적 목표로 한다고 하는 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체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⁵⁴⁾고 비판한다.

구라하라(蔵原)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 츠보이(壺井繁治)는 「농민문학에의 새로운 관심」을, 구로시마(黒島傳治)는 「농민문학의 발전」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라하라(蔵原), 나카노(中野)의 논문을 그대로 수용,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논의는 할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농민문학론을 둘러싼 농민파와 나프파 사이의 논쟁에서 프롤레타리아 작가측에서 농민파의 농민문학론을 목살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으로서 커다란 약점이었고, 나프와 이누타(犬田卯) 사이에 상호 대립과 공격으로 일관한 것은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쌍방이 발전을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⁵⁵⁾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농민파가 주장하던 ‘농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것이고, ‘농공합치의 자치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 또한 구체성이 결여된 현실성이 희박한 비과학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논쟁은 작가동맹측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거의 3개월에 걸친 논쟁은 끝나게 되고, 구라하라(蔵原)의 규정대로 농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빈농계급에 대한 ‘동맹자문학’으로 그 성격을 정립하기에 이른다.

III. 한국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전개

1.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성격

54) 池田壽夫, 앞의 책, P.168참조

55) 小田切秀雄, 日本農民文學史の展望, 『日本農民文學史』 P. 190

한국의 농민문학론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1920년대 일제의 토지수탈이라는 현실적 조건과 함께 카프의 노동자 농민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소설론에 앞서 작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초의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는 당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역사적 필연성을 지니고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민문학론을 논의하는 많은 사람들은 농민문학이란 용어와 함께 농민문학론이 우리 문단 속에 끼어든 것은 李晟煥의 「신년 문단을 향하여 농민문학을 이르키라」(「조선문단」, 1925.1)에서부터⁵⁶⁾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미 그 이전 「동아일보」 사설에서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사야 예술가야 빈민의 문학을 지을지이다. 빈민의 예술을 지을지이다. 조선이 빈민의 나라니 조선의 문학예술은 빈민의 것이라야 할 것이다. 특별히 농민의 것이라야 할 것이다. 어려운 문학, 값비싼 예술은 빈민국인 조선에서는 감상할 사람이 없다. 순박하고도 신생의 활력이 횡일하는 농민문학, 빈민예술을 창조할 시기는 熟하였다. 삼천리 어느 모퉁이에서 농민문학, 빈민예술의 성도의 일단이 출현하려나고? 이 천재의 일단은 이미 시대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요, 민족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자각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농민문학가, 빈민예술가야 나오라.⁵⁷⁾

물론 위의 글이 문학론은 아니지만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이유를 당대 민족 현실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초창기 농민문학론의 성립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농민문학론의 성립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해명되어야 할 것은 한국의 농민문학론의 성격에 따른 시기구분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논고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의 농민문학론은 3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양호는 농민소설과 소설론을 묶어서 제창기(1923-1930), 논쟁기(1931- 1933), 침체기(1934-1937), 변질기(1937-1945)로⁵⁸⁾, 권영민은 ① 3.1운동 직후 「조선농민」지 중심의 농민문학론,

56)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농민문학론에 대한 주장으로는 오양호(「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P.153)와 김윤식(「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1. P.180)은 이성환의 글에서, 김영민은 효봉산인의 「신흥문단과 농촌문예」(조선일보, 1924년 12월 8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P.287)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보다 앞서 동아일보 사설 「빈민에게로 가라」에서 찾을 수 있다.

57) 「빈민에게로 가라」, 「동아일보」, 1923년 10월 20일자 사설.

58) 오양호, 앞의 책, P.154 참조.

②계급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농민문학론, ③ 카프의 해체 이후의 부나로드 운동으로서 농민문학⁵⁹⁾으로 시기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윤식은 권영민과 같이 도시문학의 대타의식으로 전개된 농민문학과의 농민문학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의 농민문학론, 동우회 이념에 바탕을 둔 농민계몽적 농민문학론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선농민」지 중심의 농민문학론은 작가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어서 공허한 울림에 멈출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된다. 한편 동우회 이념을 배경으로 한 「흙」의 세계는 직접적인 농민문학론에 의해 지탱된 것은 아니나 동우회운동의 실천 속에 흡수된 것이어서 어느 정도의 문학론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고향」이나 「목화와 콩」을 뒷받침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의 일환으로서의 농민문학론이야말로, 하나의 문학론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파악된다.⁶⁰⁾

위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하나의 문학론으로서 농민문학론은 프롤레타리아 문학론의 일환으로서 농민문학론만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 걸쳐 소위 ‘국책문학’으로서 농민문학⁶¹⁾이 또 다른 한 시기로 문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문학론을 문제시할 경우에는 역시 프로문학계의 농민문학론만이 논쟁적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론적 깊이를 지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론에 국한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렇다면 KAPF 내에서 농민문학론이 대두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1930년 11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하리코프에서 열린 제2회 국제혁명 작가동맹(하리코프회의)에서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자 NAPF 내에 <농민문학연구회>가 설치된 것과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일어난 농민운동은 사

59)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P.251-2참조.

60) 김윤식, 「농민문학론」,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1. P.182

61) 국책문학으로서 농민문학에 대하여 최재서는 「모던 문예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널리 농촌을 배경 삼아 농민의 생활을 그리는 문학이면 무엇이든 농민문학이겠지만 요새 써워지는 이 말을 특히 거만 有馬農相을 고문으로 소화 13년 10월 4일에 결성된 ‘농민문학간담회’원들의 작품을 지칭한다. --- 이회는 유마농상의 적극적인 지원과 작가들의 협조하에 탄생된 국책적 문학단체인데 --- 이 구르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흙에 대한 농민의 애착을 강조하는 동시에 명량한 농촌을 그리자는 것이다.” 최재서,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월, PP.106-7면.

회주의측의 비합법적인 농민조합운동에 의한 것으로 코민테른의 '12월 테제'⁶²⁾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농민소설론의 성립은 외적 조건으로 하리코프회의의 결과라는 측면과 내적으로는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의 실천운동이라는 양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박태원의 「하리코프에서 열린 혁명작가회의」⁶³⁾는 하리코프에서 열린 제2회 혁명작가회의의 내용을 미국의 프롤레타리아 잡지인 「New Masses」의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대한 결의(농민문학)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문제는 권환의 「하리코프대회 성과에서 조선 프로예술가가 얻은 교훈」이란 글에서 보이는데 그는 국제혁명이 회의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프를 위해 농민문학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조선의 프로문학은 이 대회에서 활동상을 보고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일본 프로문학에 대한 결의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에서는 (가) 파시즘 예술에 대한 투쟁, (나) 동반자 획득 문제, (다)노동통신운동 문제, (라)농민문학운동 문제, (마)국제적 연락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농민문학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 큰 농민층을 가진 일본에서는 농민문학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향을 심화하는 운동에 일층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의 내부에 농민문학 연구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어디까지든지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밑에 놓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⁶⁴⁾

위의 글은 일본프로문학에 대한 7개항의 결의 가운데 농민문학에 관한 부분만을 소개한 것이지만, 권환은 일본에 대한 결의는 그대로 조선에도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조선은 일본보다 더 큰 농민층을

62) “---조선에 있어서 xx(혁명)은 그의 사회적 경제적 내용에 기초를 두고 xxxx(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봉건주의에 대하여서도 항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의 xx(혁명)은 전자본주의적 유물과 잔재의 파괴, 농업 체관계의 근본적 xx(개혁) 급 전자본주의 예측상태로부터의 토지의 xx(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의 xx(혁명)은 결코 xx(토지)혁명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63) 박태원, 「하리코프에서 열린 혁명작가회의」, 「동아일보」, 1931. 5월 6-10일자

64) 권환, 위의 글, 임- IV, P.271

가졌으며, 조선에는 토지혁명이 가장 큰 정치적 슬로건이기 때문에 농민문학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⁶⁵⁾고 하여 프로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를 비롯하여 농민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함으로써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민문학론을 논의하게 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권환의 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농민문학론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선 혁명의 제1단계를 토지혁명에 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12월 테제'에 근거하여 농민계급의 혁명성을 고무하면서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밑에 놓아야 한다고 하여 농민문학을 사회운동과 연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12월 테제'의 지침에 따라 조선 사회의 분석, 운동방침으로 구체화시킨 ML파의 한위건, 고경흠은 각각 농촌문제, 농민문제에 관한 글을 발표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으로서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는데 이는 문학운동 내에 농민문학론과 동반자 문학론을 제기⁶⁶⁾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프로젝트 농민문학론은 하리코프회의에서 일본문학에 대한 결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족 해방운동이라는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에 걸쳐 이론과 함께 많은 작품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 프로젝트 문인 가운데 농민문학론에 관한 글은 김기진, 안함광, 백철, 이병각, 권환, 송영, 임화, 김우철, 박승극 등이 참여하지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기진과 안함광, 백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들 세 사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카프 내부의 논쟁과 농민문학론

1) 대중화의 방안과 농민문학론의 제창

한국에 있어서 프로젝트 농민문학론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계급문학운동의

65) 권 환, 위의 글, P.272

66) 임진영, 「농민문학론」, 역사문제연구소,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0. P.64

방향 전환 이후 관심사가 되었던 예술대중화론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⁶⁷⁾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카프 내부에서 농민문학론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이미 김기진은 「농민문예에 대한 초안」(「조선농민」, 1929.3.)을 발표하여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다. 이 글에서 김기진의 주장은 문학이론이란 구체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 농민에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쓸 것인가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선 농민에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물론 예술 대중화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로문학계에서는 1925년 박영희에 의하여 목적의식론이 제기되면서⁶⁸⁾ 그 실천 방안으로 예술대중화의 방안⁶⁹⁾이 문제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김기진은 대중화의 방안으로 일련의 글을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농민문예에 대한 초안」이며, 이 글은 김기진이 목적의식을 농민에게 주입시키기 위하여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프로계 농민소설론의 단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물론 김기진의 주장은 순수하게 농민문학을 위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그가 이전에 주장하고 있던 예술대중화 방안으로 농민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문예운동, 널리 말하여 예술운동은 이미 그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또는 그 계급적 근거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사명을 선전함으로만 일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실제에 있어서 대중을 불드는 문예운동은 1927년 이후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공장으로! 농촌으로!’ 우리들의 일은 그 목표를 여기에 두게 되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노동자에게 읽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읽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따라서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그 외의 온갖 문장은 첫째, 노동자에게 알아 볼 수 있게, 농민이 알아 볼 수 있게 써야만 하겠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았다.⁷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기진의 농민문예에 대한 관심은 농민문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의식을 노동자

67)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PP.251-2 참조

68) 한국 프로문학에 있어서 목적의식론의 성격과 그 전개는 필자의 「1920년대 프로문학과 방향전환론」(「영남어문학」 제25집, 1996)을 참조할 것.

69) 예술대중화의 전개상상은 필자의 「한일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비교연구」(I)(「영남어문학」 제21집, 1992)를 참조할 것.

70) 김기진, 「농민문예에 대한 초안」, 「조선농민」, 1929. 3.

농민에게 주입시킬 것인가 하는 목적의식론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예술대중화가 문제시되기에 이르는데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농민 문예가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그가 이 보다 앞서 1928년에 발표한 「통속소설 소고」나 1929년의 「대중소설론」에서 주장한 것과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보다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이 점은 그가 ‘농민문예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농민문예는 농민으로 하여금 봉건적 또는 소시민적 의식과 취미로부터 떠나서 서로 단결하고 나아가게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 (2) 농민들이 귀로만 듣고도 이해 할 수 있게 쉬운 글이어야 한다.
- (3) 제재를 농민생활상에서 취할 것이며, 그것을 지주나 자본가 등에서 취할 경우는 반드시 농민생활과 대조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 (4) 소설의 경우 세세한 심리묘사보다는 뚜렷하게 사건과 인물 및 거기서 생기는 갈등을 다룬다. 이 때 그것을 객관적, 현실적, 실제적,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5) 시의 양식은 재래의 민요조나 서사시의 형식을 취한다.
- (6) 모든 문장은 낭독에 편하고 듣기에 편하도록 쓴다.⁷¹⁾

이러한 주장은 그의 「대중소설론」에서 대중소설이 다루어야 할 내용과 형식적 요건⁷²⁾과도 대동소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김기진의 「농민문예에 대한 초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문학을 원칙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으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농민을 사회변혁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깨우쳐주어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술대중화의 문제를 작품의 수준과 표

71) 김기진, 「농민문예에 대한 초안」

72) 김기진은 「대중소설론」에서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에서 ①제재를 노동자 농민의 일상 건문의 범위 내에서 취할 것, ②물질생활의 불공평과 불합리로 생기는 비극을 다룰 것, ③미신과 노예적 정신, 숙명론적 사상으로 인한 참패의 비극을 보이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보여줄 것, ④신구도덕의 충돌과 신사상의 승리를 만들 것, ⑤빈부의 갈등으로 정의로서 문제를 해결할 것, ⑥연애관계를 다루되 다른 사건을 중심이 되게 할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서는 ①문장은 평이하게, ②긴 문장은 피할 것, ③문장은 운문적으로, ④문장은 화려하게, ⑤묘사와 설명은 화려하게, ⑥성격보다 사건의 기록을 뚜렷하게, ⑦사상과 표현수법은 변증적 사실주의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진, 「대중소설론」, (임규찬편, 「카프비평자료총서」 III, PP. 521-2참조

현 형식의 문제에만 국한시켜 이해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문제인 농민의 대중 조직화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점⁷³⁾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한계 또한 농민문학을 농민문학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오직 대중화의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갖는 의미는 농민계층으로 하여금 계급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을 농민문학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문학을 계급문단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그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농민문학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한국에 있어서 본격적인 농민문학론은 안함광과 백철의 논쟁을 통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안함광은 한국에 있어서 본격적인 농민문학론으로서 최초의 글이라 할 수 있는 「농민문학에 대한 일고찰」에서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적극 주입함으로써 토지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된 불세비키적 대중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⁷⁴⁾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하리코프회의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내부에 <농민문학연구회>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농민문학의 문제는 당대 조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긴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1928년 ‘코민테른 12월 테제’를 인용하면서 농민문학 문제가 제기되지 못한 사실은 사회적 요구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말하는 농민문학에서 ‘농민’이란 농민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고구해야 할 것’⁷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처음부터 농민문학을 문제 삼으면서 농민의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농민파와 나프파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

73) 류양선, 앞의 책, P.83

74) 류양선, 앞의 책, PP.41-2

75) 안함광, 「농민문학에 대한 일고찰」, 임-IV, P.301

이 심각했음을 염두에 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그는 농민 문학과 프로문학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농민문학에 있어서 노동자 농민의 유기적 제휴, 따라서 빈농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중략)-- 농민문학을 논함에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주장 -- 예하면 농민자치주의파의 주장 -- 과 같은 것은 반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⁷⁶⁾

여기에서 그는 농민문학이란 농민 스스로에 의하여 존재하거나 농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에 의한 프로문학의 하나이거나 아니면 또다른 방계문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초기 나프의 농민문학론, 특히 나카노(中野重治)의 이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철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강조하는 것은 목적의식론과 예술대중화론 이후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노동자 농민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당면 과제로 설정했던 문학의 볼셰비키화의 연장선에서 농민문학을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농민문학의 기능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농민문학은 그 실천영역에 있어서 분산된 농민들의 힘을 한군데로 집중시킬 것, 그리고 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의 주입 및 그들에게 역사적 계열에 있어서 현실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제재에 대한 광범한 취급으로써 과학적인, 그 리고도 광활한 현실적 지식을 획득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⁷⁷⁾

이러한 안함광의 주장은 노농동맹의 논리 위에서 프로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농민에게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주입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주입’을 농민문학의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임진영은 첫째 지금까지 조선의 운동 대상은 ‘사색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아니면 ‘노동하는 인테리겐차’였지 진정한 생산대중은 아니었던 바, 조선의 혁명운동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농민에 대한 고려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지금까지 프로문학 진영을

76) 안함광, 위의 글, P.302

77) 안함광, 앞의 글, PP.301-2

포함하여 농민문학의 창작 실천은 확고한 ‘노동계급의 입장’ 속에서 구현되지 못했던 바, 이를 명확히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⁷⁸⁾고 하여 그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함광에게 있어서 농민문학은 아직까지 농민문학 자체로 이해하거나 프롤레타리아문학과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즉 동맹자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프로문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농촌사회를 가장 뒤떨어진 경제조적으로 파악하였고 그러한 농촌공동체가 어떤 사회적 단계에 일약 도달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거둬 노동자 농민의 제후를 강조한 결과⁷⁹⁾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본의 경우 초기 프로계 농민소설론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 과오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도 프로계에서 농민문학이 증시된 원인이 문학의 불세비키화와 보다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안함광의 이론의 한계는 1920년대 후반기에 문제시되었던 문학의 대중적 기반확대의 방법이 여전히 문제적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이 모색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농민문학을 주장하면서도 농민문학이 농민의 문학이면서 동시에 농민을 위한 문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라는 문제에 급급함으로써 농민의 주체적인 문학활동에의 참여를 외면해 버리고 있는 것⁸⁰⁾이다. 따라서 안함광은 농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만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철은 안함광의 논문에 대한 반응을 제기되면서 농민문학론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김윤식은 백철의 논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카프 맹원이며, 이 진영 내에서 농민문학론을 본격적으로 제창한 비평가가 안함광이었는데 이를 비판함으로써 백철은 바야흐로 카프비평가로 등장하는 셈이며, 동시에 그것이 당시 농민문학론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어서, 우리에게 비평사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⁸¹⁾

78) 임진영, 앞의 책, P.66

79) 권영민, 앞의 책, P.267

80) 권영민, 위의 책, P.269

일본에서 프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백철이 비평가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최초로 쓴 장문의 논문이 바로 「농민문학 문제」였다. 백철은 이 글을 쓸 때를 회고한 글⁸²⁾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논문은 당시 일본에 발표된 농민문학론, 특히 구라하라(藏原惟人)의 이론을 별다른 수정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구라하라(藏原)의 「농민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는 이전까지 다양하게 논의된 농민문학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농민문학의 성격을 명확히 해 준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1931년 7월 나프의 기관지 「ナッフ」에 발표된 것인데 백철의 글은 구라하라(藏原)의 글이 발표된지 3개월 뒤에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이론이 이전까지 발표된 농민문학론에 비하여 일종의 이론적 성장⁸³⁾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백철의 독창적 견해가 아니라 일본의 그것을 옮겨놓은 것이라 할 때 지금까지 높게 평가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철의 농민문학론은 안함광의 글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먼저 ‘우리들은 같은 자체내의 의견이라도 -- 아니 자체 내인 까닭에 일층 엄혹하게 -- 모든 것을 정당한 계급적 입지에서 서로 지적하며 검토하여 가야 할 것’⁸⁴⁾이라고 전제하고 논전을 시작하고 있다. 그는 안함광의 논문에서 “빈농계급에게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운운”하는 부분⁸⁵⁾을 인용하고 이는 ‘기계적 편향주의’이며,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완전

81) 김윤식, 앞의 책, P.192

82) ‘그 무렵 국내 신문에 자주 오르내린 화제의 하나가 농민문학론이었다. 이 화제를 들고나선 필자는 안함광이었다. 그는 수차에 걸쳐서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사회와 같이 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농민의 태반이 빈농인 하층계급이기 때문에 조선의 프로문학은 차라리 농민문학으로 대변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이 논조에 대해 내가 비판적인 공격적인 글을 써서 조선일보에 기고한 것이다. 31년 6월인 줄 기억한다. 그 논제가 「농민문학론」에다 <안함광씨의 농민문학론을 박함>이란 부제를 붙였다. 그 반박의 근거는 당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던 농민문학론의 신지식을 무기로 쓴 것이다.’ 백철,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 P.198

83) 김윤식, 위의 글, P.194 이와 같은 견해는 류양선, 권영민, 하세카와(芹川)도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84) 백철, 「농민문학 문제」, 조선일보, 1931.10.1-20. 임-IV, P.320

85) 안함광의 논문에서는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유기적 제휴, 따라서 빈농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임

히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농민문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문제의 제기에서 농민은 프롤레타리아 계급과의 혁명적 동맹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곡해하거나 방해하는 반동적 농민파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일본의 이누타(犬田卯)를 중심으로 한 '농민자치주의'를 비판한다. 특히 1931년 6월호 「農民」지의 특집인 「나프과 농민문학 박멸호」에서 '작가동맹의 농민문학을 가르켜 농촌을 착취하는 일종의 도시문학'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하여 나카노(中野重治)의 반박문을 인용하여 '(그들의 주장은) 부농계급을 위한 문학이며, 농민 부르조아지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없이 아무 정당한 xx(혁명)적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이 농민문학도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밀접한 지도와 영향 밑에서만 정당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무시하고는 우리는 도저히 농민문학을 정당하게 이해치 못한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들이 농민문학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언제나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체계모니하에 성립되며 발전되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농민문학만이 모든 반동농민문학이 부농계급을 위한 그것인 대신에 오직 빈농대중을 위한 참된 농민문학인 것이다.⁸⁶⁾

이러한 견해는 일본의 다데노(立野信之), 구로시마(黒島傳治), 고바야시(小林多喜二), 나카노(中野重治)등의 초기 농민소설론에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를 직접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보아왔던 사실을 염두에 둔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구라하라(蔵原惟人)의 논문에서 지적된 것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백철은 농민문학은 어떠한 계급적 기초 위에 서는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당시 한국의 농민 각층을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혁명적 농민문학은 빈농계급(화전민 및 농업노동자를 포함)과 중농의 하층부의 계급적 기초와 요구(프롤레타리아의 그것과는 구별하여) 위에 성립되는 것'⁸⁷⁾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도 구라하라의 논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⁸⁸⁾ 이처럼 처음부터 일본의 농민문학론,

-IV, 301면)로 되어 있으며, 안함광은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6) 백철, 앞의 글, 임-IV, P.316

87) 백철, 위의 글, 임-IV, P.325

88) 'xx(혁명)적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문학 또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일부가 아니고 xx(혁명)적 농민의 문학인 것이다. 이것은 지금은 내 자신의 견해라는 것보다는 일

특히 구라하라(藏原)의 이론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 실정인데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농민문학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 프롤레타리아와 농촌 빈농과의 xx(혁명)적 동맹은 미래의 xx(혁명)의 프롤레타리아적 승리에는 불가결의 필수조건이다.’가 실제적 의의에서 가장 정당하다면 우리 농민문학에 대하여서도 그것은 동반자문학과 같이 취급될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동맹문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당할 것이다.⁸⁹⁾

그러면서 농민문학은 중국에 가서는 프롤레타리아문학에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문학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적 영향을 확보하며 점차로 그의 전위부분을 프롤레타리아문학에 획득하여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농민문학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하나로 해소되려면 장구한 역사적 계단이 필요하다는 구라하라의 견해가 정당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백철의 논문을 검토하고 보면 그것은 독창적인 논문이라기 보다는 구라하라(藏原惟人)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안함광의 논문을 비판하고 있는 논리 또한 초기 농민문학론을 비판하던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구라하라의 주장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농민문학의 제재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정도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테마의 혁명성을 곧 제재의 혁명성으로 환치하지 말 것.
- 2) 이론보다 실천의 구체행동을 통하여 대중생활을 수습할 것.
- 3) 조선농촌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여 적의하게 취급할 것⁹⁰⁾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서 1)과 2)는 특별히 농민문학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없으며, 3)의 지적 또한 추상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철은 농민문학의 표현과 형식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구라하라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테면 ‘표현문제가 중요할수록 일반적 규정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통신반운동, 독서회, 문학

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지들 사이에는 대체로 해명되어 있는 사실이다.’ (백철, 위의 글, P.325)

89) 백철, 위의 글, PP.326-7

90) 백철, 앞의 글, PP.328-9 참조.

서클 등 비판회 석상에서 직접으로 농민의 요구를 들으며 감정과 의식을 아는 데서 해결될 것⁹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백철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 식민지하 한국의 현실과 밀착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백철의 글을 높이 평가한 것은 일면적 평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백철의 논문 발표가 끝나자(1931.10.1 - 20) 안함광 역시 같은 조선일보에 「농민문학 문제 재론」(1931.10.21-11.5)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철의 비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아마 백철의 글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농민문학의 일고찰」의 후속 원고를 썼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후속고를 발표한 다음 달에 백철의 글에 대한 반론 「농민문학의 규정문제」(「비판」 제8호, 1931.12)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안함광의 「농민문학 문제 재론」을 검토하면 농민문학에 대한 안함광의 태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농민문학 문제 재론」은 서론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발표한 「농민문학에 대한 일고찰」이 초보적 예비지식을 소개한 것이라면, 농민문학의 실천적 영역에 있어서의 제문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농민에 대한 일반적 관심의 회고와 비판이란 항에서 당시에 발표된 시와 소설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당시 발표된 작품 성격에 대하여 농민층의 비참한 생활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계급적 입장이 없음은 농촌 및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막연한 상태이어서 ‘프로의 동맹자인 농민’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지 못했기 때문⁹²⁾이라고 지적하여 동맹자문학으로서의 농민문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함광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자문학으로서의 농민문학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이론적 오류⁹³⁾라는 평가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농민문학 작가는 세포신문에 집필했던 농민통신원이 작가에게 과거에 있어서 농촌의 경험, 그리고 농촌의 실상등을 가르치고, 반대로 농민통

91) 백철, 위의 논문, P. 330

92) 안함광, 「농민문학 문제 재론」, 「조선일보」, 1931.10.21- 11.5 (임-IV) P.345

93) 류양선, 앞의 책, PP.43-4

신원은 작가에게서 가장 효과적인 정당한 묘사와 서술적 수법 및 표현등에 관한 최상의 방법을 배우기를 기대한다⁹⁴⁾고 하여 현실에 바탕을 둔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식민지하 현실에서 농민문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 ①산미증식계획, ②신미(新米)대량매상, ③ 농촌교화운동, ④유교부흥운동의 원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①과 ②는 직접적 영향의 문제이며, ③과 ④는 간접적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을 교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방법⁹⁵⁾이라 하여 식민지하 일제의 수탈정책에 대한 정당한 인식에 기초한 농민문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종교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천도교 중심의 「농민」파의 농민문학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함광의 주장은 백철의 비판처럼 농민문학과 프로문학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동맹자문학’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농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정당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백철의 글에 대한 반론의 글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안함광은 「농민문학의 규정문제」 - 백철군의 데마를 일축한다 - 는 글을 통하여 백철의 비평가적 태도를 공격하고 있다. 그는 먼저 백철의 주장은 <일본농민문학연구회>에서 이미 논의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문학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것은 柴田和雄(藏原惟人の 발표 때 필명-필자)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했다. 그리고 백철의 글을 ‘창의성도 없이 직수입하다시피한 논문’⁹⁶⁾이라고 규정한다. 백철은 자신의 글 가운데 문두와 문말을 절단하여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의 글에서 “-- 노동자 농민의 유기적 제휴, 따라서 빈농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빈농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운운--”이라고 소개하여 필자 본래의 인텐트를 반넘어 말살 아니 타의와 대치시키려 했다고 지적한다. 이 점과 관련

94) 안함광, 위의 논문, P.347 이러한 주장은 구라하라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95) 안함광, 위의 논문, P.347-8참조.

96) 안함광, 「농민문학의 규정문제」 - 백철군의 데마를 일축한다 -, 「비판」 제8호, 1931. 12. (임-IV) P.366

하여 그는 세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적극적 주입=기계적 주입으로 이해한 것, 둘째, 원천론과 방법론의 구분을 인식하지 못한 것, 셋째, 이데올로기적 단면의 예술적 구상화에 대한 데마라는 점을 들고 있다.⁹⁷⁾ 이러한 안함광의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농민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민대중은 자본주의와의 결정적 투쟁선상에 있어서 동요될 다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한 계급적 의식의 적극적 주입을 염두에 두고 그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농민에게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심각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프롤레타리아의 체계모니 밑으로 영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⁹⁸⁾

이처럼 그는 농민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농민이 지니고 있는 소소유자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의 체계모니 아래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과와의 관계는 ‘동맹자 문학’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중국에 가서는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일치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농민문학론을 검토한 김윤식은 안함광과 백철의 논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백철은 中野重治, 紫田和雄 등의 주장에 따라 ‘농민문학은 중국에는 프로문학에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농민문학을 현단계에서 어떻게 지도하여 프로화할 것인가. 이 답변을 안함광은 ‘빈농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이라 했는데 백철은 ‘자발적으로 그 영향하에 드러오는 것’이라 하여 기계주의적 주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로 맞선 바 있다. 이 경우, 백철의 견해가 타당하였는데 안함광의 주입식은 이미 각국에서 실패를 보았기 때문이다. 안함광도 그 후 빈농계급에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이 무리임을 자각하고 NAPF처럼 KAPF도 「농민문학연구회」를 두어 점진적 시도를 기할 것을 다시 말하게 된다. ⁹⁹⁾

이러한 주장은 안함광의 「농민문학에 대한 일고찰」을 중심으로 한 견해라

97) 안함광, 위의 글, 임-IV, PP. 367-8 참조.

98) 안함광, 위의 글, 임-IV, P. 370

99)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p. 93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민문학 문제 재론」에 이르러서는 구라하라(藏原惟人)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철이 구라하라의 주장을 통하여 안함광을 비판한 것처럼 안함광 역시 구라하라의 이론을 빌어서 백철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우리나라 농민문학론의 성격과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V 결 론

이상으로 한일 농민소설론의 성격을 살펴 보았거니와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 있어서 농민소설론이 성립한 것은 1920년대 초반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프로문학론의 일부로 문제시된 것은 아오노(靑野秀吉)의 「목적의식론」이 대두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이누타(犬田卯)를 중심으로 한 <농민문예연구회>가 조직되어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띤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소박하게 농민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이후 프로문학계와 논쟁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하여 프로문학계에서 소위 목적의식을 강조하고, 예술대중화를 통하여 어떻게 노동자 농민에게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었으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농민문학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프로문학계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된 것은 1930년 하리코프회의에서 일본을 위한 결의를 통하여 농민문학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나프 내에 <농민문학연구회>가 설치되면서 농민문학론은 새로운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농민문학은 내측으로부터의 필연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프파에서는 이케타(池田壽夫), 구로시마(黒島傳治), 고바야시(小林多喜二) 등이 소박한 농민문학론을 발표하게 된다. 이들의 농민문학론은 농민문학의 개념과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농민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동일시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다데노는 노동자와 농민을

동일한 피지배계급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케타는 농민의 존재가치를 노동자와의 결합을 통한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뒀으므로,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문학을 동일시하고,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바야시와 구로시마는 프로문학과 농민문학은 같은 것이며, 제재에 따른 편이상 구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농민문학을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동일시하고 농민의 소소유자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라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농민파는 그들의 기관지 『농민』 6월호에 「나프 농민문학 박멸호」를 통하여 나프파의 농민문학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게 되었다.

농민파의 대표적 인물인 이누타(犬田卯)는 이바라키(茨木隆)라는 필명으로 고바야시의 글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농민문학은 농민자치주의에 입각하여 성립하는 것임에 반하여 프로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 아래 농민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민 착취를 위한 정략적 문예론이라고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마츠하라(松原一夫), 마후네(眞船晃一)등은 나프의 농민문학론은 농민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바다 건너온 농민 기만의 문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서 그들의 농민문학은 농민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농민파의 발상 역시 주정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나프파와 농민파의 논쟁을 통하여 나프파는 비로소 농민문학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와 농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프로문학론으로서의 농민문학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다.

나프파에서는 나카노, 구라하라를 중심으로 농민파의 비판을 ‘한낮의 꿈’으로 치부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데 먼저 나카노는 이전의 구로시마의 주장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농민문학과 프로문학은 대립자가 아니라 가까운 혈족이라고 규정하면서 양자 사이에 무수한 가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나카노의 주장은 이전의 주장과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농민문학의 성격을 온전히 해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구라하라에 의해서였다. 그는 초기 나프파의 농민문학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론의 불철저를 시인하고, 농민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의 계급적 성격을 정당하게 파악할 필

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먼저 당시 일본 농민이 처한 현실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농민 계층을 농민 일반으로 이해하거나 부농을 위한 농민 이데올로기란 무의미한 것임을 지적하고 빈농을 위한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동맹에 의하여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농민정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농민문학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문학은 혁명적 빈농의 문학이며, 동시에 프로레타리아문학에 대하여 동맹자문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민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일본에 있어서 농민문학론의 전개양상은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 농민문학론의 성립과 성격을 규정하는데 적용되었으며, 식민지하 토지수탈이라는 현실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보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국의 농민문학론은 1925년을 전후하여 그 단초가 보이지만 그것은 소재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민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역시 1931년 하리코프 회의의 영향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박영희에 의하여 「목적의식론」이 제창되면서 예술대중화가 주창되고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노동자 농민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농민문학이 중시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농민문학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기진이 예술대중화의 방안으로 「농민문예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지만 그것 역시 그의 「통속소설 소고」나 「대중소설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농민문학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기진의 글은 농민에게 계급적 인식을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카프문학으로서 농민문학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격적으로 카프 내부에서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는 안함광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사실 안함광의 농민문학론은 지금까지 비판적인 자리에서 논의되었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백철의 견해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함광의 「농민문학에 대한 일고찰」은 나카노의 주장에 근거하여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통하여 토지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볼셰비키적 대중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마침내 백철에

의하여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 백철은 「농민문학 문제」에서 구라하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안함광의 주장을 농민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농민문학은 빈농계급에 바탕을 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동맹자문학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안함광 역시 백철의 논거는 구라하라의 견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농민의 성격을 프롤레타리아의 동맹자로 규정하고 한국의 농민문학은 식민지하 현실을 고려하여 산미증식계획이나 신미대량매상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둬으로써 일제의 수탈 정책에 대처해야 할 것을 강조하여 농민문학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카프계 농민문학론은 안함광과 백철 모두 일본의 구라하라의 이론을 수용하는 선에 머물고 식민지 한국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당대 이론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